

동아일보

2022-08-12 17:41:00 편집

프린트

닫기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경기지역 호우피해 응급복구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사장이 12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원 농업기반시설 피해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과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는 393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세월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세월용수간선 수로교가 일부 파손되고 수로관이 이탈해 10일부터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 하천을 횡단하는 수로교는 지자체 하천 정비 후 완전 복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공사는 파손된 구간에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폭우로 사면이 유실되면서 매립된 5m 길이 흙관(콘크리트관)이 이탈한 현장에는 우선 방수포를 설치해 토사가 추가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향후 사면보강 후 흙관을 재설치할 예정이다.

피해 현황과 응급 복구 대책을 점검한 이병호 사장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